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①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②**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③**그대는 죽기로써 ④간하다 ⑤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⑥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낫이 있으리오. ⑦**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⑧**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⑨**“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⑩**만조백관이며 장안백성이 구름 뒤편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⑪**인명이오면 재천이웁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는 나의 뜻은 정한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⑫**남산 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⑬**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⑭**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⑮**철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검연적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⑯**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⑰**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㉔**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㉕**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㉖**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㉗**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㉘**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㉙**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㉚**낙루**하리오. 이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㉛**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㉜**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㉝**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㉞**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되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㉟**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㊱**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㊲**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㊳**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뉘라서 붙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벗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㊴**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㊵**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작자 미상, 『박태보전』-

1. ㉑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2. ㉑의 사전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3. ㉒에 사용된 표현법과 ㉒의 실질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표현법	
실질적 의미	

4. ③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5. ④와 ⑤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④	
⑤	

6. ⑥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7. ⑦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8. ⑧이 가리키는 대상을 1음절 또는 2음절로 서술하세요.

9. ⑨가 '누구'를 가두라는 것인지 서술하세요.

10. 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여론'의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11. ⑪을 보다 매끄럽게 바꾸어 서술하세요.

--

12. ㉓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

13. ㉔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14. ㉕가 '누구'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인지 서술하세요.

--

15. ㉖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16. ㉗ 앞의 내용과 ㉗ 뒤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서술하세요.

앞	
뒤	

17. ㉘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

18. ㉙~㉚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

--

19. ㉛의 이유를 서술하세요.

20. ㉑이 가리키는 대상을 '다른 등장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술하세요.

21. ㉒, ㉓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

22. ㉔의 사전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23. ㉕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24. ㉖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㉖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2) 태보가 자신이 ㉖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하세요.

25. ㉗이 가리키는 대상을 '다른 등장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술하세요.

26. ㉗이 ㉘로 향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27. ㉘의 대상(객체)을 서술하세요.

28. ㉔의 사전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29. ㉕의 의미와 기능을 서술하세요.

30. ㉖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31. ㉗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세요.

32. ㉘의 이유를 서술하세요.